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로마 13,10)



지난 1년동안 우리나라는 격랑의 시기였습니다. 많은 비정상들 속에 정상을 외치는 촛불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불의를 타파하신 예수님처럼 정의롭지 못한 세력, 구조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루카 9,54) 제자들마저 하늘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불칼을 말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지난 대규모 집회들은 그야말로 비폭력, 평화 자체였습니다. 억울함에 양심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연일 터져 나왔던 충격적인 일들에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각자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평화로운 집회를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TV를 보면서 육두문자를 쉽게 자주 꺼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구민이 살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특정 정치세력의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 되는 곳이지만, 국정농단사태는 그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순박한 시골사람의 반응을 통해

보았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TV를 보면서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죄를 지었다.’
고 했을 때, 여러 마음이 교차되었고, 희망과 변화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수백만 명의 ‘변화에 대한 하나 된 염원’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듯합니다. 하느님은 개인의 청원보다 공동의 청
원을 더 잘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미사하고, 같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고, 같이 성시간을 보내고, 같이 레지오하고, 같이 성당의 여러 전
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구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공동체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화되어 간다면 구원은 더욱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기
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다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툼, 미움, 모함 등 종종 공동체의 일치를 해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
된 선택을 해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마태18,15)
교회와 공동체에 죄를 지은 경우에 형제적 충고(레위19,17-18)를 하라는 말씀이
지만, ‘너무 경솔하지 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말하기 좋아하고 여
기저기 잘못된 소문을 퍼트려서 쉽게 해결될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
다.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합니다.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은 겸손과 봉사와 사랑에 있습니다. 보상과 댓가를 바
라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로마 13,10) 악과 앙심이 없는 착한 마음으로 한주간
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서문동 본당 허춘도 토마스 신부



전 레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 주시어 우리가 모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에 충실하며, 형제들의 올바른 삶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입당성가 : 456번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본기도

†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 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3장 7절-9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들을 뽑으시어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을 위한 보초와 전령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용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불행에 결코 무관심 할 수 없습니다.

화 답 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 로마서 13장 8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묵 상 : 남의 잘못을 일깨워 주는 것은 단순히 단죄와 심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8장 15절-20절

강 론 :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로마 13,10)(1-2쪽)

예물준비성가 :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 176번 ‘믿음 소망 사랑’

영성체 후 묵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슬퍼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함께 웃으며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그를 꾸짖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우리 이웃의 잘못을

형제적 충고로 올바르게 잡는데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58번 ‘주의 말씀 듣고’

※ 공소사목 성금

이정희님	100,000원	김종성님	50,000원
홍재상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5,18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하반기 중고등부 회장단 모임

- 주제 : “밭에 묻힌 보물”(마태 13.44)
- 일시 : 9월 10일(주일) 9:30 - 17:00
- 대상 : 본당 중·고등부 회장단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주일미사 준비, 간편한 복장, 운동화
- 참가비 : 20,000원

■ 9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9월 10일(주일) 12:00 (송현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 9월 17일(주일) 12:00 (공검본당 은척공소)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순교자 현양 성가발표회

- 일시 : 9월 23일(토)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
- 종목 : 1) 성가발표 : 합창 혹은 중창
지정곡(순교자 현양 성가 1곡)
자유곡(기타성가 1곡)
※ ‘가톨릭성가’ 외의 곡도 가능합니다.
- 2) 기타공연 : 악기연주, 춤, 연극, 콩트 등

■ 안동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9월 27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9월 21일(목)까지

■ 여우목 교우촌 축복미사 및 이윤일 성인 흉상 제막식

- 일시 : 9월 20일(수) 11:00
- 장소 : 문경 여우목 성지 및 교우촌
- 미사 : 안동교구장, 대구대교구장 및 보좌 주교 공동 집전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 과정 안내 :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적 일기 쓰기. 격주로 모여 강의를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내면화하기.
- 연수 일정 : 9월 30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9월 30일/ 10월 14일/ 10월 28일/
11월 11일/ 11월 25일/ 12월 9일/
12월 23일/ 12월 30일 - 총 8회
- 장소 : 영해 성당
- 내용 : ‘성경 통독 일기’ 연수(동해지구)
(강의와 말씀 심화 프로그램)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주임)
- 대상 : 동해지구 신자
- 회비 : 1인 40,000원
(영적 일기 노트 비용 포함)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신청 : 9월 14일(목)까지 사목국

■ 안동가톨릭문인회 시화전

- 일시 : 10월 21일(토) ~ 29일(주일)
- 장소 : 교구청

■ 가톨릭상지대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 1차 모집 : 9월 11일(월) ~ 9월 29일(금)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2018학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보건 복지교육계열 4년제 대학, 신입생 장학금 100%, 만족도 높은 쾌적한 최신 기숙사
- 모집인원 : 간호학과 76명, 사회복지학과 22명, 유아교육과 14명
- 원서접수 : 9월 11일~9월 15일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처 : 유웨이
- 문의 : 061-280-5108, 5150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5장

사랑의 결실

확대된 결실

183. 사랑의 힘을 체험하는 혼인한 부부는, 이러한 사랑으로 버림받은 이의 상처를 감싸 주고 만남의 문화를 형성하며 정의를 위하여 싸우도록 부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정에 세상을 ‘가정화’하는 일을 맡기시어 모든 이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든 견고한 가족 정신을 불어 넣는 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일상생활의 체계가 점점 더 근본적인 인간적 연대에서 완전히 멀어져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사회적 정치적 관습도 퇴보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연대를 맺는 가정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친교를 쌓습니다. 이 가정들은 복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심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끝으로 이 가정들은 그 삶에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것을 실천합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루카 14,12-14 참조).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습니다.

184. 가정은 그들의 증언과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해 주고, 신앙을 전하며,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복음과 그 복음이 제안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부부는 형제애, 사회적 감수성, 약자 보호, 빛나는 신앙, 활기찬 희망이라는 색으로 회색 사회를 밝게 칠합니다. 그들의 풍요는 확대되고 수없이 많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하느님 사랑이 사회에서 현존하게 됩니다.

몸의 식별

185.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성경의 본문이 통상적인 문맥에서 벗어나거나 포괄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 그 사회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사회와 가장 직접적이고도 직결되는 뜻이 간과되는 오류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바로 성인이 공동체에서 발생한 부끄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코린토 1서 11장 17-34절과 관련됩니다. 여기에서 일부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차별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성찬례를 포함한 아가페 만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맛난 식사를 하였지만, 가난한 이들은 그저 바라만보며 배고파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1코린 11.21-22)

186. 성찬례는 우리가 교회라는 유일한 몸의 지체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받아 모시는 이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추문이 되는 차별이나 분별로 그 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을 ‘식별’하기, 곧 성사적 표징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알아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1코린 11.29 참조). 이 성경 구절은 자신의 안락함에 머물며 외부와 단절된 가정들에, 특히 가난하고 도움이 가장 절실한 가정들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한 가정들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례 거행은 모든 이가 “자신을 돌이켜보고”(1코린 11.28) 자기 가정의 문을 열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과 더 깊은 친교를 이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는 성찬례적 사랑의 성사를 받으라는 지속적인 요청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성사의 ‘신비’가 사회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분열과 증오와 불평등에 동의하는 이들은 모령성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체를 정기적으로 모시는 가정은 형제애, 사회적 양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헌신에 대한 열망을 강화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냄새는 기억을 환기한다.

박월수 아네스
(안동가톨릭문인회)

샤워를 마치고 나온 딸아이가 달뜩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안방 욕실에서 기분 좋은 냄새가 나!”

욕실 문을 열어 보았다. 연하게 번지는 곰팡내가 내 게으름을 꾸짖는다.

일본어를 공부한 딸아이는 오키나와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다. 일본의 가장 남쪽, 우기가 오래 지속되는 그곳은 덥고 습하다고 했다. 그러니 아이가 묵었던 여행자 숙소에서는 곰팡이가 동거인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국에서 곰팡내를 친구처럼 여겼을 딸아이를 떠올리니 새삼 안타까운 맘이 드는데 정작 아이의 표정은 그게 아니다.

딸아이가 그곳에 간 때는 본토에 지진해일이 휩쓴 직후였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아이들도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던 때였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뒤였고 아이는 계획대로 가고 싶어 했다. 아이와 내가 타협점으로 찾은 것이 본토와 멀리 떨어진 남쪽 섬으로 가는 것이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따윈 모르던 아이는 그곳에 가면 또 다른 무언가와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안고 떠났다. 도착한 첫날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종일 비가 내렸다고 했다.

아이는 여행자 숙소에 멀뚱히 앉아 밖을 보다가 무작정 거리로 나갔다. 빗속을 걷는데 문득 악기점이 눈에 띄었고 마치 목적지가 거기인 양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리곤 푹푹하고 나직하게 말했다.

“제일 작고 제일 싼 기타를 주세요.”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파울로코엘료의 브리다가 떠올랐다.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던 그녀가, 영혼의 반려자를 찾아 갖가지 모험을 하던 깊은 눈의 그녀가 생각났다. 어쩌면 딸아이라도 처음 가 본 낯선 땅에서 자신의 쓸쓸함을 함께 할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이다.

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혼자서 기타를 쳤다고 했다. 평소에 가장 쳐 보고 싶던 곡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연습을 했단다.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이고 어느 정도 그 곡에 익숙해 질 때쯤 아이는 오사카로 떠나게 되었다. 첫 친구가 되어주었던 기타는 아이와 함께 갈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짐이 부담스러워 그곳 숙소에 두고 왔다고 했다. 지금쯤은 다른 외로운 여행자의 위로가 되어주고 있을지 모른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섬에서 만난 노인의 눈빛이라고 했다. 노인은 지진해일 때문에 유출된 방사능을 피해 도망 다니다 오키나와까지 왔다는 사람이었다. 인생의 거의 모두를 소진했지만 무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그의 눈빛에서 아이는 무엇을 읽었을까. 삶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에 불어 닥칠 재앙이 불안해 살던 곳을 등진 노인! 방사능 유출의 진원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섬은 노인의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 주었을까? 그곳에서 그는 희망의 유혹 같은 걸 느꼈을까? 그를 보며 딸아이는 두려움이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이란 걸 분명 눈치 챘을 것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아이는 영혼의 한 부분이 마모되어 버리는 걸 경계하고 고독을 잘 감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길을 떠나는지 모른다. 젊은 날의 내가 그러했으므로. 어느 순간 꿈을 벽에 걸어두고 사는 나와 매일 만지고 쓰다듬는 딸아이는 다르다. 문밖에 길들은 다 당신 거라고 꼬드기는데도 나는 이제 솔깃하지 않는 나이다. 달콤한 바람이 불어도 어쩔 수 없다. 냄새가 기억을 환기하는 오늘 같은 날, 딸아이는 또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짐 꾸릴 준비를 하는지도 모른다.